

조선로동당창건 70돛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연설

영용한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돛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열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동무들!

로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 존경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

동지들!

오늘 우리는 승리자의 크나큰 긍지와 환희에 넘쳐 조선로동당 당기가 창공높이 휘날리는 10월의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10월 10일은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자기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진정한 혁명의 전위대, 전투적참모부의 탄생을 경축하는 의의깊은 혁명적명절입니다.

오늘의 성대한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우리 당이 장장 70년간 군대와 인민을 령도하여 억척같이 다져온 무진막강한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줄것이며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광명한 미래에로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혁명적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당의 수백만 당원들과 전체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존엄높은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모든것을 다 바친 항일혁명선열들과 인민군렬사들, 애국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당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 인민은 당창건 일흔돛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하여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으로 온갖 도전과 난관을 박차고 어머니당에 드리는 전례없는 로력적선물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인민의 불같은 충정이 굽이치는 승리의 광장, 경축의 광장에 서고보니 우리 인민을 떠난 오늘의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이나 할수 있으랴 하는 인민에 대한 고마움에 지금 이 시각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의 정겨운 눈빛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당이 장장 70년세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올수 있었던것은 우리 당을 운명의 전부로 믿고 따르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위대한 인민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역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입니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우리 당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고 강인한 의지로 역사의 험한 풍파속을 뚫고오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해준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당창건 일흔돛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깊이 허리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당의 호소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애국의 더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영웅적신화들을 련이어 창조하고 승리의 대축전장에 뿔뿔이 들어선 우리의 미더운 당원동지들과 영용한 인민군장병들, 자랑스러운 청년전위들을 열렬히 축하하며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우리 인민의 경사의 날을 축하하여 여기에 참석한 여러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의 역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행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인민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어 투쟁하는 불패의 혁명적당, 참다운 령도적정치조직으로 건설하시였습니다.

우리 당은 자기의 붉은 기폭에 마치고 낮과 밤을 아로새긴 때로부터 인민과 한시도 떨어져본적이 없으며 언제나 인민을 하를처럼 섬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왔 습니다.

력사에는 우리 혁명처럼 가장 간고하고 복잡한 조건에서 걸음걸음 혁명의 진퇴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련과 역경을 헤쳐온 례는 없습니 다.

신생조선은 너무도 청소하였으나 세계 제패야망에 환장한 미제는 참혹한 전쟁을 강요하였고 빈터우에서 허리띠를 조이면서 힘들게 복구하면 또 새로운 침략의 위협을 몰아왔으며 인민경제를 발전시키자고 하면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로 앞길을 가로막았습니 다.

그러나 우리 당은 그 어떤 곤경속에서도 항상 배심든드히 돌진하였으며 이 땅우에 거창한 전변의 새 력사를 펼치고 위대한 승리만을 안아왔습니다.

력사의 돌풍속에서 우리 당이 믿은것은 오직 위대한 인민뿐이였으며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돌도 없는 지지자, 조언자, 방조자였습니 다.

지난날 세계혁명운동사의 교훈은 집권당이라고 하여, 당의 력사가 오래다고 하여 저절로 령도적권위와 전투력이 높아지고 혁명을 잘 이끄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쌓아올린 거대한 업적은 혁명 그자체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식화하고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탁월한 혁명사상과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것입니다.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한 여기에

우리 당이 력사의 모진 광풍에도 흔들림 없이 혁명의 방향타를 역세게 틀어쥐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이끌어온 근본비결이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입니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우리 당은 나아갈 침로를 정할 때마다, 준엄한 난국에 부닥칠 때마다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였으며 인민의 진정에서 무궁무진한 힘을 얻군 하였 습니다.

전지전능한 인민대중의 창조력은 우리 당이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대한 사회주의성세를 일떠세우고 제국주의의 악랄한 봉쇄속에서 강국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을수 있게 한 기적의 원천이 었습니 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정치적생명과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는것은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제일중대사로, 본분으로 되어왔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최악의 시련속에서도 천신만고를 다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씨앗들과 사회주의재부들을 마련하고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해온것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만이 배풀수 있는 인민사랑의 정치입니다.

우리 당이 언제나 인민대중을 생명의 뿌리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해온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은 당을 진정 운명의 등대로, 어머니로 믿고 따르게 되었으며 이 땅우에는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자랑스럽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동지들!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로동당의 위력은 무진막강한 혁명무력을 가지고있는데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총이 없는 백성은 망국노의 설음을 면치 못하며 혁명의 총대우에 인간의 존엄도 행복도 있다는 진리를 뼈에 사무치게 새긴 인민입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의 안녕과 생명 재산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불패의 군력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습니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자위로선과 선군 정치에 의하여 인민군대는 그 어떤 침략 세력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최정예 혁명강군으로 자라나게 되었으며 전인민적, 전국국가적방위체계가 부단히 강화되어 지금 우리 국가는 금성철벽의 요새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습니다.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언제나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위력한 보검이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창조해나가는 힘있는 선봉대, 돌격대였습니다.

경제국방병진로선을 제시하고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과정에 우리 당은 모든것이 부족한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전반적국력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동시에 인민생활도 향상시켜나가는 귀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2면으로 계속)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청년전위들의 해불행진 《위대한 당을 따라 청년들 앞으로!》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였다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광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 《조국통일》 등의 합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수많은 고무풍선이 날아오르는 광장상공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식참가자들과 군중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며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는 전체 군대와 인민에게 뜨거운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애국가와 《조선로동당 만세》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조선로동당기가 게양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총참모장이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다고 보고드리였다.

열병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경축하여 조선인민군 레포구분대가 70발의 레포를 발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열병대원들과 군중들은 우리 조국을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으로 빛을 뿌리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경의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의 노래가 주악되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광장에 들어섰다.

열병행진이 개시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석단을

을 지나는 열병대오들에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에 이어 평양시군중시위가 진행되였다.

군중시위가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으며 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하늘가에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석단로대에 나오시어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행진 《위대한 당을 따라 청년들 앞으로!》가 10일 저녁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청년들을 조선로동당의 아들딸,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워주고 이 땅에 청년사랑, 청년중시의 대경륜을 펼쳐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자랑스런 력사와 전통을 길이 빛내어나갈 일념안고 혁명학원대렬, 청년대학생대렬, 근로청년대렬들이 장엄한 행진을 개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해불행진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손을 저어주시며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는 그들을 축하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친필글발 《김일성 1994. 7. 7.》이 누리를 밝히고 《자주통일》, 《평화》, 《친선》, 《우리 민족끼리》, 《6.15》 등의 글발들과 도형들이 펼쳐져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부강하고 통일된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해불행진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천지의 맑은 물처럼 순결하고 백두의 이갈처럼 강직한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과 청년문화로 내 나라, 내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맨 앞장에서 빛나게 관철해나감으로써 백두산청년강국의 위력을 만방에 힘있게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1면에서 계속)

침략과 전쟁으로 제 몸집을 비육시켜온 횡포한 미제와 직접 맞서 수치스러운 패배만을 안기고 제국주의의 강도적인 제재와 봉쇄도 강행돌파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단합된 힘은 원수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이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으며 조국의 푸른 하늘과 인민의 안녕을 억척같이 사수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는것을 당당히 선언할수 있습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의 남다른 긍지는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나갈 청년대군이 준비되어있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창당 첫시기부터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보고 청년중시를 전략적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왔습니다.

전당이 일상적으로 청년교양에 힘을 넣고 청년동맹에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대담하게 맡겨주면서 당의 청년전위로 내세워준 믿음과 사랑속에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년대들마다 조국보위초소와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여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였습니다.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담보를 모르고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나아가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강철의 청년대오가 있기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선물로 마련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을 비롯하여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세운 자랑스런 청춘대기념비들은 조선로동당의 후비대가 어떻게 준비되고 조선혁명의 대가 어떻게 이어지고있는가를 힘있게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당이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백만 자루, 천만자루 품도 아끼지 않았기에 오

늘 우리 나라는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청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대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습니다.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력사적로정은 당에 충실한 인민이 있고 강위력한 혁명군대와 청년대군이 있으면 그 무엇도 두려울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습니다.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에 혁명적당의 생명이 있고 힘이 있으며 양양한 전도가 있다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 당 70년사의 고귀한 총화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전략을 제일가는 무기로 틀어쥐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매진할것이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할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입니다.

조선로동당의 더없는 영광과 불패성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데 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데 있습니다.

우리 당이 조선을 이끌고 광명한 미래에로 힘차게 나아가자면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백방으로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입니다.

우리 당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갈것입니다.

우리 당은 당건설과 당활동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해나갈것이며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전당이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것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백배해나갈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의 진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의 모습에 있습니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습니다.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할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헌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당으로 자기의 무겁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며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것입니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용위하는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존대하고 스승으로 여기며 인민은 당을 어머니와 같이 무한히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의 일심단결이야말로 조선의 참모습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

우리 일꾼들은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에 가득 채우고 인민앞에 무한히 겸손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진창길을 앞장에서 헤치면서 인민이 바라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일터와 초소, 마을을 당중앙위원회 뜨락과 같이 여기고 항상 당과 심장의 말을 나누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다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동지들!

우리 당은 일심단결과 선군의 위력으로 외세의 온갖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적극적이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것입니다.

동지들!

근로하는 인민이 영원하듯이 인민을 위하여, 인민과 함께 투쟁하는데 영원한 정의와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민주의의 한생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조선을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사상과 업적을 귀감으로 삼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할것이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갈것입니다.

력사의 그 어떤 도전도, 원수들의 그 어떤 발악도 당과 일심일체를 이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며 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칼바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하고 존엄높은 우리의 붉은 당기를 뜻으로 삼아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조선인민의 투쟁속도를 지연시키지 못할것입니다.

세계는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우리 인민의 힘과 슬기를 총폭발시켜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국을 어떻게 일떠세우는가를 푼독히 보게 될것입니다.

성스러운 우리 혁명의 이름과도 같고 70년의 승리의 력사와도 같은 인민을 하늘처럼 만드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우리 혁명을 이끄는 기관차가 되고 력사의 전철기를 쥐고있기에 영원히 주체혁명위업의 대로는 승리와 영광의 길로 펼쳐지게 될것입니다.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아갑시다!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표식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귀중한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을 따라온 부대강화의 자랑찬 발전행로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곳 군부대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교시와 그 관철정형에 대하여 하나하나 료해하시면서 아직도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앞으로 부대당위원회가 장군님의 유훈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부대사업의 중심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조항별로 하나하나 드팀없이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장군님을 닮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고 힘찬 산악도 진멸도 단숨에 날아넘는 펄펄나는 일당백의 싸움군, 천만대적도 무쇠주먹으로 단매에 부서버리는 맹장들로 억세게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작전연구실, 군사상학실, 종합훈련실을 돌아보시면서 군부대의 전투임무와 훈련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당창건 70돐을 높은 전투정치훈련성과로 빛내일 불타는 일념을 안고 올해 훈련에서 자랑찬 위훈을 세운 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에서 조선로당당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법의

요구대로 현대전에 대처할수 있는 각종 작전전투방안들과 전투조법들을 연구하고 숙련할수 있게 작전연구실, 군사상학실, 종합훈련실을 잘 꾸린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350군부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군부대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는 문제, 작전방안을 수정보충하는 문제,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을 비롯한 장비들을 더욱 현대화하며 경상적인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는 문제, 훈련을 현대전의 양상과 현실조건에 맞게 조직진행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군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의 도서실과 군인회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인식

당과 일일창고, 룡창고 등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휴양소를 방불케 하는 지휘부구내를 오래도록 거니시며 지휘관들과 담화도 나누시고 부대지휘관리실태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은 군인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고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부르기도 불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저어주시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와 청년전위들의 해불행진 《위대한 당을 따라 청년들 앞으로!》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민심은 독재를 용납치 않는다

해마다 찾아오는 10월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유신》독재의 살풍경을 되새겨주는 것과 함께 독재에 맞서 민주화의 새싹을 키워낸 추억을 불러주는 의미깊은 달이다.

1972년 10월 17일, 남조선에서는 당시 독재자 박정희가 《비상사태》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체제를 조작하였다.

《유신》체제는 독재자의 영구 집권을 합법화하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깎그리 말살하려는 극악한 파쇼독재체제였으며 《두개 조선》조작으로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반통일대결체제였다. 아울러 외세를 무한정 붙잡아두고 더욱 본격적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남조선을 영구한 미국의 식민지군사기지로 만들려는 매국배족의 체제였다.

《유신》체제가 조작됨으로써 남조선은 자주, 민주, 애국적인 모든것이 교살된 암흑천지로 화하였으며 조국통일을 념원하는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게 되었다.

이것은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용감한 분노를 자아내었다.

《유신》파쇼독재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울분은 해를 거듭하며 쌓이고 쌓여 마침내 1979년 10월 11일에는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반 《정부》투쟁이, 나아가서는 부산시내 수많은 노동자, 시민, 학생들이 참가한 대중적인 투쟁이 일어

났다.

폭압을 박차고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선 부산의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독재(정권) 퇴진하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학원의 민주화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들고 용감히 싸웠다.

부산에서 타오른 투쟁의 불길은 삼시에 마산과 서울, 대구와 광주, 전주와 청주, 울산 등 남조선의 전지역을 휩쓴 대중적인 반 《정부》투쟁으로, 민주항쟁으로 확대되었으며 박정희 《유신》파쇼독재의 종말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수십년이 지나고 세기가 바뀐 오늘 남조선에서는 민주와 정의를 향한 역사발전의 흐름을 되돌려세우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현 보수집권세력에 의해 과거의 피비린내나는 《유신》파쇼독재가 다시 부활되고있다.

《유신》독재자의 후예인 남조선당국자에 의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의로운 활동을 벌인 통일애국인사들이 중형을 받고 감옥에 끌려가고있으며 전쟁반대, 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투쟁에 나선 진보세력들이 《중복세력》으로 몰려 탄압당하고있다.

남조선 각계를 격분시키고있는 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통합진보당의 그 무슨 내란음모사건이라는것도 《유신》독재부활책동이 낡은 산물이다.

이뿐이 아니다.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이 정의와 진보를 말살하고 사대와 매국, 파쇼독재를 합리화하기 위해 벌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놀음을 《유신》독재부활의 절정을 이루고있다. 금권을 동원하다 못해 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를 비롯한 관권을 총발동하여 불법비법으로 권

력을 가로챈 현 남조선집권자가 《정권》의 정통성과 조상들이 저지른 반민족적, 반통일적죄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역사교과서의 곡늘음에까지 매달리고있으니 남조선인민들이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당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놀음을 《유신으로의 회귀》, 《력사쿠데타》라고 단죄규탄하면서 《박근혜사과》, 《국회》일정거부 등으로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으며 여기에 청소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도 여러가지 형식의 투쟁을 벌리며 강력히 단죄규탄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여 힘차게 울려나오는 항거의 웨침은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독재세력의 망동을 단호히 짓부셔려는 민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정의와 진실, 진리를 추구하는 민심은 불의와 매국, 파쇼독재를 결코 용납치 않는다.

본사기자 김 응 철

항공모함 띄워놓고 가족상봉 하려는가

미국이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부산앞바다에서 진행되는 그 무슨 《관함식》이라는데 참가한다는 명목하에 핵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간》호를 비롯한 대규모적인 전투함선집단을 부산해군기지에 들이밀려 하고있다. 또한 여기에 참가하였던 전투함선집단을 주축으로 하여 남조선미국연합상훈련을 강행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북핵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미해병대 전체무력의 15%를 하와이와 괌도 등 태평양지역에 전진배치할것이라고 내놓고 떠든것도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명백히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화해와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이 그에 로골적으로 제동을 걸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계속 긴장시켜 저들의 동북아시아지배전략을 실현해보려는 책동의 산물이다.

한편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전쟁책동에 추종하여 항공모함을 끌어들이려 하면서 그 무슨 《확고한 동맹강화의 파시》니, 《군건한 〈한〉 미동맹으로 북의 변화유도》니 뉘니 하고 대결적인 폭언들을 늘어놓고있어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최근 북남사이 극적으로 마련된 고위급진급접촉을 통하여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는 시점에서 핵항공모함까지 끌어들이며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강행하려는것은 완화의 기류에 로골적으로 찬물을 끼얹으려는 위험천만한 반공화국적대행위가 아닐수 없다.

더우기 금강산에서 모처럼 흘러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는 시각에 항공모함이 전개되고 연합해상훈련이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내외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있다.

반세기를 넘어 생리별속에 살아야 했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이 모처럼 마주앉아 혈육의 정을 나누고있을 그 시각에 화약내를 풍기며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벌리는것은 초보적인 인륜도덕을 무시하는 반인륜적행위가 아닐수 없다.

폭음이 울리고 화약내 풍기는 속에서 흠어진 가족, 친척들이 마음놓고 마주앉아 정을 나눌수 없으며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명든 이들의 가슴속에 또다시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기리라는

것은 자명한 리치인것이다.

지난해에도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관련한 북남적실사실무접촉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 《B-52》전략핵폭격기편대를 조선서해 직도상공에 띄워놓고 핵타격연습을 벌려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냈다. 지난해 3월 금강산에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가 한창 진행되는 때에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어 상봉행사 분위기를 극도로 흐려놓았다.

침략을 예고하는 대규모전쟁장비들이 집결되고 대화상대방을 위협하는 핵전쟁연습들이 련일 벌어지는 상황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으며 불신과 대결의 골만이 더더욱 깊어지게 된다는것은 지나간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아픔을 절감한다면 어렵게 마련된 완화와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의 분위기에 역행하는 대결적인 전쟁행위들을 그만두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명 성

대화상대방에 대한 정치적도발

북남고위급진급접촉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자세에서는 이렇다할 변화가 보이지 않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도이쉴란드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집권자가 한 말에도 그것이 드러나있다.

그는 《북핵포기와 인권문제를 위한 공조강화》니, 《도이쉴란드동일경험》이니 하며 체제대결의 흥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나중에는 《국제사회에 〈한〉 반도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분단의 고통을 겪은 도이쉴란드이기때문

에 〈한국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할것으로 기대한다.》고 저들의 《통일외교》에 대한 지지를 구걸해나섰다.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흡수통일》흥심의 발로이며 대화상대방에 대한 정치적도발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이미 전에도 도이쉴란드를 행각하여 《자유의 물결》이니 뉘니 하며 《드레즈덴선언》이라든지 을 내놓고 《흡수통일》의 기도를 드러내놓은것은 잘 알려져있다. 《대통령》직속기구로 조직한 《통일준비위원회》도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위원회라

는것이 여실히 립증되었다.

이번에 남조선당국자가 도이쉴란드대통령을 만나서 체제대결방언을 또다시 늘어놓은것은 그들의 변하지 않는 대결흥심을 잘 보여주는것이다.

지금 온 겨레가 바라는 통일 은 대결과 충돌을 불러올 《흡수통일》이 아니라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이며 평화적인 럼방제방식의 통일이다.

남조선당국이 추구하는 《흡수통일》은 체제대결의 길이고 그 끝 은 북과 남의 제난적인 충돌이다. 그리고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묵숨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이른

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 통할수 없다는것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에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온 세상에 다시금 파시된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위대한 인민의 힘은 핵무기로도 깨뜨릴수 없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똑바로 알아야 한다. 《흡수통일》이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이루어지 못할 허망한 개꿈이라는것을. 그리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다가 저들자신에게 돌이킬수 없는 화가 초래된다는것을.

본사기자 최 명 제

남조선집권자가 지난 《대선》시기 내걸었던 《공약》중의 하나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였다.

남조선인민들 대다수가 그 《꿈》에 현혹되었었다.

지금은 깨닫는다.

꿈은 《천국》, 현실은 지옥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해 3월 남조선의 서울 송파구의 세모녀가 생활고로 자살을 했다.

그들이 남긴 유서에는 이런 글이 씌여있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불평등한 사회가 세모녀를 죽음으로 떠밀었던것만 그들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송파구의 세모녀만이 아니다. 올해 5월에는 《사는데 힘들다. 화장해 뿌려달라.》는 내용이 적힌 유서를 남기고 경기도 부천에서 세자매가 자살을 택했고 같은달 《나를 화장하여 제철소문앞에 뿌려달라.》고 하며 광양제철소의 노동자가 그렇게 갔다.

지난 8월 21일 부산에서는 4년째 취업을 못한 대학졸업생이 자살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은 삶을 위해 있는것이 아니라 숨쉬는 목숨일 따름이었다.

그나마도 유지할수 없어 자살을 택하였다.

왜? 그에 대해서는 아래의 자료들이 대답을 준다.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측이 1년간 자살시도를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리유를 문의하니 분

이루어질수 없고 악이 강요하는 꿈은 상상도 환상도 아닌 망상이라는것을.

노를 참지 못한 결과였다는 대답이 78.5%였다고 한다.

또 어느 한 전문가는 사회의 가족붕괴, 가족살인이 번발하고있는데 대해 《세대단절》, 《가족기능소멸》, 《가족갈등폭력화》, 《가족구성원의 소외》, 《하층계급의 투명인간화》 등을 요인으로 밝히면서 부친 세자매자살사건이 그 대표적표현이라고 하였다.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자살에 대해 《생존위기에 처하거나 차별을 받는 등의 사회적인 요인이 주원인》이라고 하였다.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만이 아니다.

서울 명문대학교를 나온 한 실업자는 좌절에 빠져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다(진짜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할것은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소연하였다.

한 민간단체 회원은 집권자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해 《내 꿈은 정규직》에서 《내 꿈은 생존》으로 되었다고 개탄하였다.

집권자가 말하던 《내 꿈》이라는것은 결국 있는자, 권력

자들만의 호강이었던것이다.

직업을 잃고 가정을 잃고 사회의 버림을 받고 꿈마저 빼앗긴 남조선인민들은 극단적인 자살을 택한다.

하지만 그들의 자살은 자기생의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린 사회에 대한 항거이고 《나》와 같은 생이 그 사회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비참한 하소연이며

현실이 미래가

남조선의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의 자살자수를 밝히면서 그 수는 최근 전세계에서 발생한 주요 전쟁사망자수보다 더 많다고 비명을 올렸다.

보건복지부의 통계결과에 의하면 2007~2011년까지의 자살자는 7만 1 916명으로 이라크 전쟁 사망자 3만 8 623명보다 약 2배 많고 아프가니스탄전쟁 사망자 1만 4 719명에 비하면 약 5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자살자수도 정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남조선의 연간 자살자는 약 1만 5 000명가량이지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약 500만명, 계획하는 사람은 약 200만명, 자살을 실제 시도하는 사람만 15만~30만명에 달한다는것이 보건복지부의 집계이다.

대량살륙을 동반하는 전쟁보

반인간적사회에 대한 처절한 고발인것이다.

《죄송합니다.》

송파 세모녀의 유서는 단지 집 주인에게 남긴 말이 아니었다.

내가 살기 위해선 네가 죽어야 한다는 약육강식의 제도, 돈으로만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각박한 사회에 대한 항거이고 고달픈 인생살이의 마지막 절규였다.

현실이 지옥인데 천국일가

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내는 남조선의 자살문제는 심각하다는 한마디 말로는 너무 가볍다.

약육강식, 황금만능의 남조선사회에서 사람들은 생존경쟁을 벌린다.

아이들은 《왕따》와 학교폭력속에 살아남기 위해, 청소년들은 대학입학과 《미친 등록금》, 취업에 대한 부담, 그리고 《삼포세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년들은 직업과 가정유지를 위해, 노인들은 말년기의 불우한 생을 이어가기 위해...

남조선의 자살자, 그들은 치열한 생존경쟁정도가 아닌 살벌한 생존전쟁의 희생자들인것이다.

지난해에만도 1만 4 000명에 가까운 자살자가 나왔고 특히 극심한 학업부담과 취업난을 겪고있는 20대이하 청소년자살

자가 1 450명으로 전체 자살자 10명중 1명은 여전히 20대이하 청소년층이라고 한다.

최근 남조선청년층속에 유행되는 신조어들은 사회의 지옥같은 현실을 그대로 설명해준다.

《지옥같은 한국》을 의미하는 《헬조선》, 사람값에도 못가는 서민들을 가리키는 《동수저》, 《한국》을 탈출해야 산다는 《탈조선》, 《대한민국의 《대》를 《개》로 바꾼 《개한민국》, 뜻대로 지옥을 의미하는 《지옥불만도》, 외로움, 우울, 무력감의 악순환속에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뜻하는 《은둔형 외톨이》 혹은 《무중력청소년》...

남조선사회는 말그대로 수라장이다.

청년들이 대부분인 남조선군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 부대에서 사병이 군화끈으로 목을 매 자살하자 군당국이 내린 조치라는것이 모든 장병으로부터 끈이라는 끈은 모두 압수하라는것이였다.

바지에 사용하는 혁피는 물론 지어 속옷에 들어가는 고무줄까지 압수하는 바람에 사병들이 근무중에 흘러내리는 바지를 추어올리는 회비극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남조선의 자살문제는 단순히 사회를 쪼먹는 질병이 아니라 미래까지 망치는 암인것이다.

남조선의 어느 한 대학교수는 《자살은(집단발병)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가장 심각한 사회적문제의 하나다. 한주에 270여명이 자살하고있다는건 매주(세월)호 1척이 침몰하고있다는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다.

침몰하는 사회, 미래가 없는 암울한 인연지옥이 바로 그 무슨 《인권》타령이 실재없이 울려나오는 남조선인것이다.

본사기자 김 정 혁



생존권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낸 미술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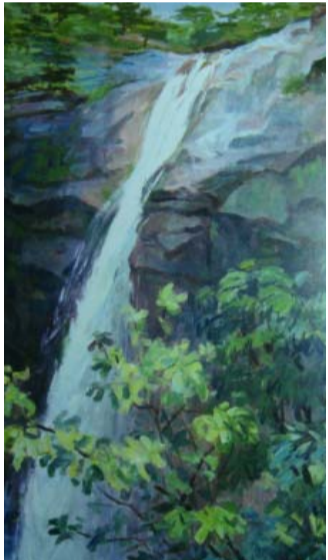
름 팔이 화가가 인민의 화가로

나라없던 지난날 미술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살아온 립군홍은 미술가들 대부분이 그려왔던 것처럼 가치있는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일보다 먹고살기 위한 생활수단으로서 부유계층의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이것저것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감시와 엄격한 검열을 통과해야만 전람회에 출품할수 있는 어려운 조건으로 하여 인물이나 꽃이나 그리는데 불과했다.

재능은 있으나 피어날수 없고 체협한 생활내용을 화폭에 담고싶어도 그럴수 없는 현실이었다.

립군홍은 1912년 3월 서울의 품팔이근집에서 태어났다.

가난을 등에 지고 다니는 하루살이집안형편으로 하여 상급학교에도 갈수 없었고 소년기부터 신문배달을 하고 개인병원에서 지저분한 일도 하며 살았다. 밤이 되면 서울



유화 《박연폭포》(1958년)

양화연구소에 달려가 잡다한 일을 도우며 미술기초공부를 하였다.

립군홍은 1927년부터 1936년까지 양화연구소에서 미술을 배웠고 자기가 그린 그림을 전람회에 출품하였다. 1938년에는 개인전시회도 해보았으나 신중한 유풍작품은 없었다.

그는 중국 한구시에 들어가서 상업적인 유풍을 그리면서 살아갔다. 그러나 생동한 사실주의적작품은 그려내지 못하였다.

이 시기 유화 《풍경》(1940년), 《뒤거리》(1941년), 《포점》(1942년)을 창작하였다.

립군홍은 1946년 서울에서 남조선미술가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여러 경향을 가진 미술가들 속에서 립군홍은 산전수전을 겪은 화가로서 진보적인 립장에서 현실을 대하였다.

그는 미술단체모임에서 리승만 《정권》의 반인민적정책을 규탄하는 선전화를 그려 전시한것이 문제가 되어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끌려갔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에 의해 서울이 해방되자 그는 국립미술제작소에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형상하여 남녘땅에서 벌어지는 군중집회와 모임장소에 모시는 사업을 하였다. 나라없던 시절 백두산에서 울려오는 항일의 총성과 빨치산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존경과 흥미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던 그는 당시 미술계에서 잘 알려진 화가 리쾌대 등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형상에 자기의 재능과 열정을 다 바치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립군홍은 여러 화가들과 함께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왔다. 준엄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그는 일제시기 품팔이식창작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민의 화가로 되었다.

그의 창작에서의 급격한 전환은 사상적변화과정으로 되었으며 자기의 청춘시절을 돌이켜보는 계기로 되었다.

유화 《전선원호》(1952년), 《조선어린이》(1952년) 등은 마자르에서 열린 싸우는 조선의 미술전람회에 전시되어 그나라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해방전이나 해방후 남조선에서 창작을 하던 시기에는 미술의 사회적역할을 알지 못하였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는데 사실주의 특성이 있다는것도 옳게 리해하지 못하고있었다.

소품습작형식으로 붓을 휘갈기면서 즉흥적으로 그려냈다. 작품이 잘 팔리지 않아 전전 궁궁하며 마구 그려낸 습작들은 진지한 사실주의적묘사를 찾아볼수 없는것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공화국의 품에 안긴 후 예술가의 사상정신적 높이가 곧 현실을 보고 대하는 기준으로 되며 그것이 창작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미학적원리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싸우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화면에 담게 되었던것이다.

특히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는 미술이 한갓 개인의 취미와 흥행물로 될수 없다는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수령의 혁명업적과 인민대중의 투쟁

을 그려내는 미술가로 더욱 성장발전하게 되었다.

유화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무기를 나르시는 열렬한 공산주의 투사이신 강반석녀사》를 창작하였다.

그는 화폭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국 도우신 강반석어머님께서 위급한 정황에서 소갈비속에 권총을 감추어가지고 일제군경들을 감쪽같이 속이며 목격자까지 나르신 내용을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또한 유화 《무장투쟁을 호소하시는 조선민족해방투쟁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은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역사적사실에 근거하여 조형적으로 훌륭히 형상한 작품으로 된다.

그는 일반주제의 작품들에서도 실재한 현실과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성격을 전형화, 일반화하는 사실주의창작방법을 잘 구현하였다.

립군홍의 생활과 창작활동과정을 통하여 미술작품이 한갓 돈벌이수단으로 되어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인간에게 참담게 복무하는 현실주제의 좋은 작품이 나올수 없으며 손끝재간만으로는 참된 인민의 예술가로 될수 없다는 생활과 창작의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게 된다.

그는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날부터 생의 마지막날까지 사회주의사실주의창작방법에 의거하여 시대와 인민들이 요구하는 좋은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최명수

연감자국수로 소문난 강계면옥

평양시 대성구역 금성거리에는 건물의 외경을 통나무로 만든것처럼 특색있게 장식해놓아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아담한 2층짜리 식당이 있다. 그곳이 연감자국수를 비롯한 자강도의 이름난 음식들을 잘 만드느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진 강계면옥이다.

원래 산이 많고 기후도 상대적으로 찬 자강도에서는 서늘한 곳에서 자라는 감자, 수수와 같은 작물들이 많이 날뿐 아니라 겨울이 긴것으로 하여 연감자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음식문화가 오래전부터 발전해왔다.

연감자국수는 소화가 잘되고 강우하여 예로부터 이 지방사람들이 즐겨 먹은 장수식품으로 알려져있다. 그래서 자강도의 특산이라면 연감자로 만든 음식들과 약리적가치가 큰 삼지구엽초, 가시오갈피를 비롯한 약초들, 두릅, 참취를 비롯한 산나물들을 꼽는다.

연감자국수, 연감자떡, 연감자지짐, 수수지짐, 수수부꾸미, 두릅회를 비롯하여 자강도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들을 만들어 봉사하는 강계면옥은 평양시민들이 즐겨찾는 식당들중의 하나이다.

이곳 식당에서 사람들은 자강도

의 토배기음식들을 맛보며 참 별 맛이라고 저마다 음식평을 하군 한다. 산골지방음식의 특색을 제대로 살리고있는 강계면옥에서 평양시민들은 자강도의 먼곳까지 가지 않고서도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음식들을 요구대로 맛보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강계면옥을 찾는 사람들은 통나무형식으로 장식한 식당홀이며 복도, 계단 그리고 울창한 수림에 들어선감을 주는 식사실 등을 보고 감탄하군 한다. 그래서 한번 왔다가는 맛있는 특산음식과 산골맛이 나게 꾸려진 식당내외부의 정취에 끌려 또다시 찾군 한다고 한다.

식당경영에 필요한 원자재들을 자강도현지에서 직접 날라다 쓰는 강계면옥에서는 요리사들도 자강도사람들이다. 연감자국수를 잘 만들기도 소문난 최형순 주방장은 자강도 랑림군에서 요리사로 오래동안 일해온 고급요리사이며 김영화지배인 역시 자강도태생이다.

김영화지배인은 말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각 도들에서 자기 지방특산물을 가져다 수도시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그러면 평양시가 흥성거리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그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습니다. 우리는 철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받들고 평양행면하면 유류관을 꼽듯이 연감자국수하면 우리 강계면옥을 제일먼저 꼽도록 하기 위해 봉사사업을 더 잘해나가겠습니다.》

본사기자 고영숙



최근 공화국의 북변에 위치한 라선땅에서는 전 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되어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불과 얼마전에 백년이래의 처음보는 폭우와 큰물피해로 엄청난 재난을 당한 지역이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천지개벽되고 한 지에 나앉았던 인민들이 크고 멋있는 집들에 새집들이하는 꿈같은 일이 펼쳐진것이다.

이것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리해할수 없는 일이다.

예로부터 불난 골은 있어도 물난 골은 없다는 말이 있다. 화재피해보다 큰 물피해가 더 무섭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황포한 자연의 광란이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린 사실은 수없이 많다.

지난 8월 라선시를 휩쓴 큰물피해때에도 많은 집들이 침수되고 인명피해

까지 발생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가산을 잃고 한지에 나앉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의 큰물피해가 얼마나 큰것이였는가 하는것은 라선시사람들이 하나의 전쟁을 겪은 심정이라고 말하고있는데서도 잘 알수 있다. 졸지에 재난을 당한 라선시민들의 그때 심정이 어땠겠는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재난은 얼마안가 북으로 바뀌어졌다. 그것은 인민사랑의 정치가 안아온 기적이였다.

라선시피해복구와 관련한 문제가 나라의 중대사를 론하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의 중요안건으로 취급되고 여기에서 피해복구를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끝낼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되었으며 피해복구를 위한 사령부까지 조직되

었다. 이어 강력한 군인전력량이 라선현지에 파견되어 전국, 전민의 지원속에 복구건설이 힘차게 진행되게 되었다. 큰물피해를 당하고 한지에 나앉은 인민들이 걱정되시어 머나먼 그곳에까지 찾아오

면서 머나먼 하늘길, 령길, 바다길을 달려 기적의 선경마을을 찾으시였고 군인들이 인민들의 새 집들이까지 도와주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하기에 지금 라선지역 인민들은 받아안은 사랑이 너무 크고 고마워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를 심장으로 웨치고있다.

이번에 공화국의 북변 도시에서 일어난 전화위복의 기적은 인민대중제

류, 경질유리그릇, 식료품을 비롯한 생활필수품까지 한가득 수해지역인민들에게 보내주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마음이 놓일것 같다고 하시

일의 사회주의제도에서만 꽃피날수 있는 인민사랑의 새 전설이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런 꿈같은 일을 상상도 할수 없다.

자연재해를 당하면 즉

음과 파산의 낭떠러지에 몰려야 하고 지어 자연재해후에 인재까지 당해 더욱 참혹한 재난을 겪는것이 황금만능의 사회에서 레사롭게 펼쳐지는 비극적인 현실이다.

멀리 불것 없이 지난 9월 5일 남조선 제주해협에서 발생한 《돌고래》호전복사고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된 이 사고를 두고 남조선 각계는 《세월》호참사와 마찬가지로 천재가 아닌 인재라

고 말하고있다.

지난해 《세월》호가 침몰되고 수백명의 아이들을 비롯한 승객들이 한 날한시에 무참히 바다에 빠져죽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돈밖에 모르는 기업과 인민의 생명재산은 안중에 없는 반인민적인 정치가 빚어낸 대재앙이였다. 충분히 살릴수 있을것도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고도 남조선당국은 사건 1년이 더 지나도록 진상규명조차 하지 않고 가로막아 유가족들과 각계 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고 가슴에 재가 앉은 학부모들을 위로하고 돌봐주시는커녕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최루액까지 뿌리며 탄압해나선 남조선집권세력이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층이 《이것이 나라인가. 우

리를 버린 이 사회, 나도 이 사회를 버리겠다.》, 《이건 나라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다.》고 울분을 토로하였겠는가.

엄청난 자연재해를 딛고 행복의 절정에서 기쁨의 웃음을 터뜨리며 새집들이한 라선시민들과 오늘도 차디찬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통성을 벌리는 남조선의 《세월》호유가족들.

북남의 판이한 정치가 펼쳐보인 너무나 대조적인 두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그 무슨 《북인권》타령을 설세없이 토해내는 남조선당국의 행위야말로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어디가 진정한 인권천국이요 어느곳이 사람 못살생지옥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철호

재해로 보는 두 현실

